

14년 상반기 중국 승용차 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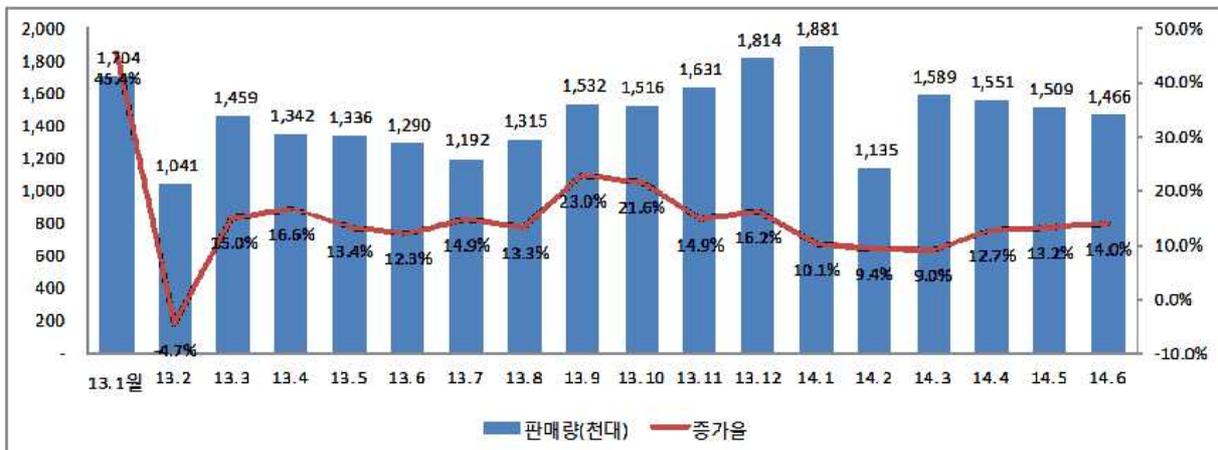
(14. 7.)

상해사무소

1 14년 상반기 중국 승용차 시장

- (성장률) '14년 상반기 중국의 승용차는 총 9.1백만대가 판매. 이는 전년 동기대비 11.8% 증가한 수치로 견조한 성장세 기록
 - 기존에 중국 경기 불황, 소비위축 등으로 업계에서는 8~10% 성장을 예측하였으며, 일부는 비관적으로 5%대의 성장을 예측하는 전망도 있었으나, 10%를 초과하는 성장률 기록
 - 중국의 승용차 산업은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

중국 승용차시장 월별('13. 1~14. 6) 판매 동향



자료: 중국자동차협회

- (차종별) SUV·MPV·미니밴 등은 1.47백만대가 판매, 전년대비 14.0% 증가하여 전체 승용차 증가율(11.8%)을 상회
 - 최근 중국내 SUV등의 선호도는 높은 상태로 다국적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Nielsen사가 중국 자동차 협회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잠재적 소비자의 54%는 SUV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SUV의 성장률은 일반 세단보다 지속적으로 높을 전망
- (제조사별 세단판매) 브랜드별로는 세단 판매에서 대부분이 10%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, 중국 브랜드는 10위권에 없는 등 부진한 모습

승용차(세단) 부분 제조사별 점유율(단위: 만대)

순위	회사	13상반기 판매량	14상반기 판매량	증가율
1	이치 폭스바겐	67.28	81.02	20.4
2	상해 폭스바겐	66.35	78.54	18.4
3	상해 GM	68.62	70.72	3.1
4	베이징 현대	38.29	42.68	11.5
5	둥펑 닛산	33.61	38.73	13.7
6	선룽 시트로엥·푸조	25.23	29.84	18.3
7	창안 포드	23.11	29.42	23.3
8	둥펑 기아	21.25	24.14	11.4
9	충칭 창안	n.a	19.94	-
10	이치 토요타	n.a	17.84	-

주 : 충칭 장안과 이치토요타는 '13년 상반기 10위권 밖임

자료: 중국자동차협회

- (국가별) 중국계가 363.0만대로 전년대비 3.48% 감소하였으며, 한국계를 제외한 독일·일본·미국·프랑스계 모두 증가
 - 중국계 회사는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소비자들은 수입차 또는 수입브랜드를 선호하고 있어 중국계 회사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쉽지 않을 전망
 - 일본계 자동차 회사의 점유율도 0.51% 높아져 최근 중일간이 정치적 문제가 판매감소 등으로 연결되지 않는 모습

승용차(전체) 부분 국가별 점유율(단위: 만대)

	'13년 상반기	점유율	'14년 상반기	점유율	증가율
중국계	356.67	41.16	363.03	37.68	△3.48
독일계	167.66	19.35	205.74	21.36	+2.01
일본계	128.10	14.78	147.28	15.29	+0.51
미국계	105.23	12.14	122.12	12.68	+0.54
한국계	79.13	9.13	86.37	8.97	△0.16
프랑스계	27.69	3.20	35.29	3.66	+0.44

자료: 중국자동차협회

- 한국계의 경우 SUV등을 포함한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8.97%로 전년대비 0.16% 감소한 반면, 세단의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10.86%로 전년대비 0.67%증가하여, SUV·MPV·미니밴 등 세단 이외의 부분에서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유추

세단 부분 국가별 점유율(단위:만대)

	'13년 상반기	점유율	'14년 상반기	점유율	증가율
중국계	161.53	27.65	136.82	22.24	△5.41
독일계	146.31	25.05	175.12	28.47	+3.42
일본계	97.95	16.77	102.16	16.61	△0.16
미국계	91.55	15.67	99.89	16.24	0.57
한국계	59.53	10.19	66.81	10.86	+0.67
프랑스계	25.23	4.32	30.82	5.01	+0.69

자료: 중국자동차협회

2 중국 진출 우리 관련기업들의 동향

- 중국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현대·기아차에 납품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업황이 좋은 상황임
- 일부 기업들은 현대·기아차 이외의 상하이GM등 합작회사 앞 납품을 실시하는 등 거래선 다변화를 추구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
 - 다만, 중국내 외국계 합작회사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국내에서 각 회사의 기준에 맞는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
 - 또한, 합작회사라고 하더라도, CEO등을 제외하면 직원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기술력과 더불어 판시 등도 중요
- 중국계 기업들의 기술수준은 한국계 기업의 약 70% 수준으로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

3 향후 전망

- 중국의 승용차 산업은 성장기로서 향후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지만*, 심각한 공해문제로 대도시는 대부분 번호판 경매 등을 실시하여 차량 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**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위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

* 중국의 1,000명당 자동차 대수는 80대 수준에 불과

** 상하이의 경우 매달 자동차 번호판 경매(매월 7,000~8,000개)를 실시하며 낙찰가는 약 7.5만 위안(12,000달러) 수준

- 상하이GM, 폭스바겐 등은 중소도시 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계 업체와 비슷한 가격수준의 저가형 차량을 개발하여 판매
- 최근 중국정부가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 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노력*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배터리 등 관련부분 성장이 예상
- * 취득세 면제, 관용차 친환경차 우선 구매, 보조금 지급, 전기차 연구개발 확대 등

[자료: 중국자동차산업협회, China Daily 등]